

#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광주·전남 경제계 '촉각'

### 올해보다 16.3% 높은 수준...월 환산액 250만8000원 경기 부진에 영세사업장·소상공인 등 부담 가중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광주·전남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0원(16.3%)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이 불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근로자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에 달하는 만큼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업종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차등 적용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이 87.1%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미만을 역시 숙박·음식점업이 31.6%로 제조업(3.7%)과 금융·보험업(6.1%)을 크게 웃돌았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일부 업종의 지불 능력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의 경기 상황도 녹록치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광주 62.4, 전남 75.2를 기록했다.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역시 광주 55.2, 전남 80.0에

머물렀다.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는데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상인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다른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5월 광주지역 집합건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608건을 이미 넘어섰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축소와 영업시간

단축, 무인화 전환 등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역시 고려돼야 한다"며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와 경제계의 차등 적용 주장이 맞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쉽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T, 통신업계 최초 '다국어 AI 상담사' 도입 KT가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업계 최초로 매장 내 '다국어 AI 상담사'를 도입한다. KT는 외국인 고객이 자국어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멤버십 혜택 등 통신 서비스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KT 다국어 AI 상담사'를 선보인다. 사진제공=KT

## 소진공, 위기 놓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위기 알리톡 발송...맞춤형 밀착 멘토링 등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위기 소상공인 1200개사이며,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맞춤형 밀착 멘토링을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소진공·지역 신용보증재단·17개 민간은행은 위기소상공인의 선제

적 대응을 위해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한 후 '위기 알리톡'을 발송하고 있다.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은 소진공 대출 이용자 중 연체 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자 중 보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저소득자(연 소득 3000만 이하) 중 17개 민간은행의 최근 6개월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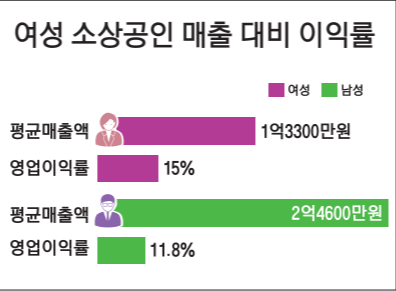
'위기 알리톡'을 수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경영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1대1 맞춤형 경영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진단 완료 후 도출된 개선 전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담 PM 밀착 관리(최소 3회)를 제공하며, 희망할 경우 전문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보완하는 채용멘토링(최대 2회)을 추가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권역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

## 여성 소상공인, 매출 적어도 수익성 앞섰다

### 영업이익률 15%...남성보다 높은 '효율 경영' 일·가정 양립 부담 여건...돌봄·판로 지원 필요

국내 여성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여성 소상공인의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소상공인은 매출 대비 이익률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효율 중심의 경영 특성을 나타냈다. 여성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1억3300만원으로 남성 소상공인(2억4600만원)보다 낮았지만, 영업이익률은 15.0%로 남성(11.8%)보다 3.2%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 소상공인이 비용 관리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외형 확대보다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여성 기업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수준을 보이며 여성 경제활동의 기반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기술 활용 수준은 남성과 유사하지만, 향후 도입 의향은 여성 소상공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돼 온라인 판로 확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경영 환경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여성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병행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구조상 돌봄 공백이 곧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춤형 경영 지원과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용성 기자

## 한전, 공기업 첫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산간·도서 통신 인프라 확대...재난 등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

한국전력이 공기업 최초 저궤도 위성통신(LEO)을 활용한 비상통신망 구축에 나선다. 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되더라도 전력설비 운영과 현장 복구 지휘 체계를 유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전력은 최근 본사와 서울·경기 등 주요 사업소에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위성전화를 시범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고궤도 위성통신은 약 3만8500km 상공에서 신호를 송수신해 통신 지연이 발생하거나 기상 여건에 따라 통신 품질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저궤도 위성성은 약 550km 상공에서 운영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통신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전은 이번 시범 구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본사와 지역본부 간 지휘·보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강원과 경북 산간지역에는 차량용·이동형 위성통신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신망이 두절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해 실시간 상황 공유와 전력설비 복구 작업 지휘가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할

예정이다. 산악·도서·해상지역 등 휴대전화 통신 음영지역에도 위성통신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향후 다양한 디지털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축적된 무선 전력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무선통신 산업 연합체인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 산업 어워드에서 국제 유틸리티 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와이파이7(Wi-Fi 7), 위성통신, 인공지능(AI) 기반 CCTV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제14회 수원화성 그림그리기대회 전국 공모전

### 2026. 6. 4 목 ~ 7. 3 금 (7월 3일 소인분까지)

- 주 제**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 작품 규격 및 출품 요령** 유아·초등부: 8절 도화지 | 중등·고등부: 4절 도화지  
\* 작품 뒷면에 지역(시군구), 소속학교(유치원), 학년, 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집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인적사항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 방법** 우편 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4 청송빌딩 5층 기호일보 경기본사 우)16237
- 수상자 발표** 7월 23일(목) 기호일보 지면 및 홈페이지(www.kihoilbo.co.kr) 게재
- 시 상 식** 8월 22일(토) 예정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 시 상** 장관상, 각 기관 및 단체장상 등 다수
- 문 의** 기호일보 경기본사 031-898-6767(8)

\* 후원 및 시상 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호일보 홈페이지 www.kihoilbo.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전에 제출하신 출품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주최주관 | 기호일보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수원특례시 수원광역시청 고양특례시